

# 인지도 대결? 이젠 정책대결

‘스파링은 끝났다. 본격적 싸움은 이제 시작이다’

4·9총선을 앞두고 광주·전남 지역 예비후보들의 선거운동방향이 바뀌고 있다. 민생현장을 몸으로 파고들면서 인지도 높이기 위해 총력을 쏜 후보들이 지금까지의 선거전략을 수정, 미래 광주와 지역을 선도할 책임있는 공약을 제시하면서 정책대결에 나서고 있는 것이다.

통합민주당의 공천 심사가 늦어져 유권자 속으로 파고드는데 한계가 있는 상황에서 공천심사 위원회가 “대한민국 대표를 뽑는 일”이라며 엄정한 공천 심사를 강조한 뒤 정치 신인들이 저마다 숨겨놓은 공약을 ‘비장의 무기’로 꺼내는 등 전투모드로 전환하고 있다.

조영택 통합민주당 광주 서구갑 예비후보는 13일 광주시의회 기자실을 찾았다. 조 후보는 이날 광주·전남의 5대 현안과제 및 광주발전 8대 공약, 서구발전 10대 공약, 민생문제 해결을 위한 7대 입법과제 등 100여쪽에 이르는 정책 공약을 설명했다. 공약집에는 착수 우선순위와 완성시기, 예산확보 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제시돼 검증이 가능토록 했다.



〈조영택씨〉 〈서정성씨〉 〈정기남씨〉

### 민주 공심위, 후보 선정 지지부진에

조영택·서정성·정기남씨 등 신인들

정책·비전 담은 공약집 잇따라 발표

서정성 통합민주당 광주 남구 예비후보도 이날 '7up'이라는 이색적인 제목의 공약집을 발표했다. 7가지를 업그레이드시켜 광주와 남구 발전을 이루겠다는 의미. 전문성을 갖춘 정책자문단이 광주와 남구지역 현안을 교육·경제·문화·환경·복지·교통·통일 등 7개 주제별로 세분화했다. 여기에 매니페스토 TF팀까지 꾸려 유권자들의 눈높이에 맞는 공약 개발도 추진중이다.

정기남 통합민주당 광주 남구 예비후보도 지난 10일 '정책과 비전으로 승부하는 새정치'를 펼치겠다고 정책 비전과 5대 공약을 내놓았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평화통일가정당 광정환(사진 앞줄 가운데) 총재와 광주지역 출마 후보들이 지난 11일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출마의 변과 함께 18대 총선 공약을 발표했다.

## “가정이 행복한 나라” 평화통일가정당 총선 출사표

### 광주·전남 20곳 후보 등록

평화통일가정당이 원내 교섭단체 구성을 목표로 광주·전남지역 총선 출사표를 던졌다.

가정당 광정환 총재는 지난 11일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오는 4·9 총선에서 광주·전남지역을 비롯, 전국 245개 전 지역 구에 후보를 낼 계획이며 원내 교섭단체 구성(20석)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광 총재는 “이미 광주 8개, 전남 12개 선거구에 20명의 예비후보가 선거관리위원회 등록을 마치고 바다 민심을 높고 있다”고 덧붙였다.

광 총재는 “가정당은 가정의 행복을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고 가정이 행복한 나라를 열어 나가겠다”고 천명했다.

한편 가정당의 광주지역 출마자는 동구 김공수 세일로신협 이사장, 서구갑 문상필 남미청소년에이즈퇴치운동 파라과이 본부장, 서구를 이동규 세계평화청년연합 광주시회장, 남구 공석윤 남북통일운동국민연합 중앙위원, 북구갑 최한규 선문대학 초빙교수, 북구를 양길문 남북통일운동국민연합 중앙위원, 광산갑 박정수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일본13지구회장, 광산을 김경옥 한국 청소년순결운동본부 광주광역시회장 등이 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 4·9 총선 현장

### 박지원 “새 정부 호남차별 노골화” 비난



○박지원 통합민주당 목포 예비후보는 11일 이명박 정부가 각종 인사에서 호남출신 인물들을 철저히 배제하는 등 겉으로는 통합을 얘기하면서도 실제로는 지역차별을 노골화하고 있다고 비난.

박 후보는 이날 성명을 내고 “이명박 정부의 오만과 독선을 견제하고, 김대중 전 대통령이 이루어 놓은 6·15정 상회담과 햇볕정책의 역사적 성과를 지키기 위해 모든 힘을 다하겠다”고 역설.

### 8개 생활체육협의회 “장병완 지지”



○전남대 신현식 교수와 축구연합회·배드민턴연합회·게이트볼연합회 등 8개 생활체육연합회 등은 12일 장병완 통합민주당 광주 북구갑 예비후보 지지를 선언.

이들은 “장 후보는 예산·재정 전문가로, 이명박 정부의 호남 소외 우려가 큰 상황에서 광주 지역을 발전시킬 유일한 인물”이라고 지지 의사를 표명.

### 이용섭 ‘첨단교회 노인대학’ 개강식 참석



○이용섭 통합민주당 광주 광산구를 예비후보는 12일 광산구 도전동 비어점단교회 노인대학 개강식에 참석, 노인 복지정책에 대한 의견을 청취.

이 후보는 이날 “가정과 사회에서 소외감을 느끼는 노인들이 없도록 건강검진 및 교양 프로그램을 다양화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등이 확대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

### 박주선 “노인 복지정책 개발에 최선”



○박주선 통합민주당 광주 동구 예비후보는 12일 지역 상가와 노인 무료급식 등 민생현장을 순회하는 등 바닷바다 민심잡기에 분주.

박 후보는 이날 동구 빛고을종합사회복지관을 방문, 노인을 상대로 하는 무료급식 현황을 살펴본 뒤 “동구는 노령화 비율이 극히 높다는 점을 감안, 노인 복지정책 개발에 헌신의 힘을 기울여야겠다”고 의지를 피력.

### 강운태 “사직·광주공원 리모델링해야”



○강운태 광주 남구 예비후보(무소속)는 12일 ‘사직공원과 광주공원을 문화예술공원으로 리모델링해 시민들이 즐겨 찾는 문화수도 핵심사업으로 지원육성하겠다’는 내용의 공약을 발표.

강 후보는 “현재 사직공원과 광주공원의 이용률은 극히 저조한 편”이라며 “가족과 연인, 문화예술인이 즐겨

찾는 도심 속 문화예술 공간으로 탈바꿈시켜겠다”고 약속.

### 이영호, 해남·완도·진도 선거사무소 개소



○이영호 의원(통합민주당)이 지난 7일 해남읍 고도리에서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갖고 총선 표밭잡이를 본격화.

선거구 통·폐합에 따라 새로 만들어진 해남·완도·진도 선거구에 출사표를 던진 이 의원은 “지난 4년간 농어촌 발전과 농·수·축산인의 권익 향상에 주력해왔다”고 강조하고 “앞으로도 해남·진도·완도 지역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지지를 호소.

### 김중배 전 의원 “양형일 지지”



○15대 국회의원을 지낸 김중배 전 의원은 12일 양형일 의원(광주 동구)의 지지를 선언.

김 전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양 의원은 도심공동화와 상권 붕괴 등 지역 현안 해결 및 아시아문화중심 도시조성사업의 지속적 추진을 통해 동구 발전 방안을 구체화시킬 책임자”라며 지지 배경을 설명.

### 지병문 “평생교육 질적·양적 성장 필요”



○지병문 의원(광주 남구)은 12일 남구 월산동 금호평생교육관을 찾아 임직원들과 만남의 기회를 갖고 의견을 수렴.

지 의원은 이날 “평생교육의 질적·양적 성장이 이뤄져야 지역민의 삶의 질도 향상된다”면서 “국회 교육위원회 활동 경험을 바탕으로 다양한 정책을 입안, 인적 자원 개발을 위한 안정적 평생교육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

### 임내현 “신용카드 수수료를 인하해야”



○임내현 통합민주당 광주 북구를 예비후보는 12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광주지부 정기총회에 참석, 회원들과 대화의 시간을 갖고 민심을 수렴.

임 후보는 이날 “신용카드 수수료를 인하를 비롯, 영세 상인들의 고통을 덜어줄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발굴하는데 온 힘을 쏟겠다”며 지지를 호소.

### 이병화 “광주 U대회 유치에 최선”



○이병화 통합민주당 광주 서구를 예비후보는 11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13세계유니버시아드 광주유치범시민지원단 발대식에 참석, 광주시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을 당부.

이 후보는 “유니버시아드 대회 유치는 광주를 세계적인 스포츠도시, 국제적인 첨단 문화·산업도시로 발전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대회 유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

### 심재민 “새 정부, 통합의 정치 펴라”



○심재민 통합민주당 광주 광산구갑 예비후보는 12일 보도자료를 내고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은 지역차별·계층차별로 분열과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고 성토.

심 후보는 “실용을 이야기하면서 한쪽에선 목은 지역감정과 싸갈문을 꺼내드는 것이 이명박 정권의 실용인가”라고 반문하고 “지금은 국가발전을 위해 국민통합의 큰 길을 가야할 때”라고 통합의 정치를 촉구.

### 전·현직 시·구의원 5명 “김영룡 지지”



○김복일, 유혜자 광주 서구의원과 박영수 전 광주시의원 등 전·현직 시·구의원 5명이 12일 김영룡 통합민주당 광주 서구를 예비후보를 지지한다는 성명서를 발표.

이들 전·현직 의원은 이날 성명서에서 “중앙정부와 관계에서 폭넓은 경험을 쌓은 김 후보야말로 서구의 현안인 탄약고 이전 문제를 확실하게 매듭지을 책임자”라고 지지 배경을 설명.

### 유종필 “도심 공영주차장 확보 필요”



○유종필 통합민주당 광주 서구갑 예비후보는 12일 “공영주차장을 확대, 주차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

유 후보는 이날 “상무지구의 경우 주말이면 임대 도로가 온통 주차장으로 변하는 등 주차문제가 심각하다”면서 “도심 공영주차장을 확보하는 한편 불법주차장 근절을 위한 대시민운동도 펼쳐나가자”고 제안.

### 김승남 “유류세 10%인하 효과 미미”



○김승남 통합민주당 광주 광산구를 예비후보는 12일 보도자료를 통해 “새 정부가 1조3천억원의 세수 감소를 감수하며 시행한 유류세 10% 인하 정책이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

김 후보는 “국제유가가 급등하는 상황에서 지역민들이 충분히 혜택을 볼 수 있으려면 유류세 추가 인하는 물론 주유소뿐 아니라 정유사의 공급가격을 공개하는 등 강력한 후속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

### 노영복, 한나라당 광주 남구 출사표



○노영복 한나라당 광주 남구 예비후보는 12일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출마를 공식 선언.

노 후보는 “수십년간 조순대 교수를 지낸 경험을 바탕으로 남구를 교육 특구로 조성하겠다”면서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이 낮은 자세로 국민을 섬길 수 있도록 감시하고 정부에 지역 민심을 전달하는 힘 있는 국회의원이 되겠다”며 지지를 당부. /홍행기자 redplane@kwangju.co.kr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